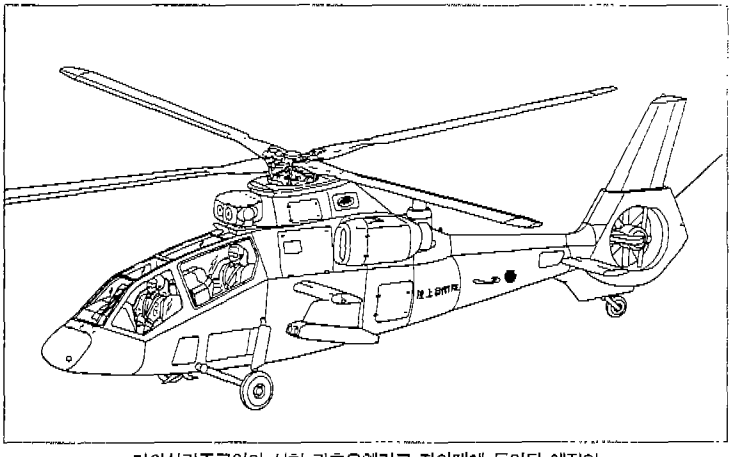
일본산 헬기출고 일 가와사키 관측용으로

일본의 가와사키중공업은 자국산 소형관측용 헬기(KHI)를 출고하여 지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발표하였다.

동 헬기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현재 쓰고 있는 관측용 OH6-D기의 후속기종으로 가와사키사가 일본 방위성으로부터 '92년에 주계약사로 선정, 수주한 것으로 '92년 12월에 설계팀을 구성한후 '92년말에 엔진을 미쓰비시 XTS-1로 선정하고 이번에 출고하게 된 것이다.

동 사는 앞으로 각종 기상시험을 거쳐 올 여름에 첫비행을 할 계획이며 2-4호 시제기를 제작하여 내년 6월까지 총 4기를 인도할 예정이다.

동 헬기는 복합재를 상당부분 사용하고 전투시 손상을 경감하는데 주력하여 제작되었다고 전한다. 동 기종은 향후 약 250기 이상을 일본 자위대가 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색, 사진촬영, 레이도관측, 전파수집, 교란 등의 임무에 투입될 전망이다.



가와사키중공업의 신형 관측용헬기로 자위대에 투입될 예정임

미 국방부, 무기판매 부진 KC-135, 미사일 등

미 국방부는 싱가폴의 F-16전투기 공중급유용으로 사용되는 KC-135급유시 4대(2억8천만달러 상당)와 이집트에 판매예정이었던 6억7천만달러 규모의 F-16C 21대의 판매가 난항을 보이고 있다.

이집트는 21대의 F-16C기종에 기능이 향상된 레이더와 맥도널더글라스사의 Harpoon, 락웰(Rockwell)사의 GBU-15미사일을 장착토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 공군은 KTX-II훈련기 실전배치 이전에 사용할 노드롭그라만(Northrop Gramman)사의 T-38 훈련기 30대를 임대할 예정이다.

B-2 스텔스 폭격기 결함 발견

미 공군은 노스롭프그루만(Northrop Grumman)사 B-2 스텔스 폭격기의 비행시 엔진부분이 깨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 10일 부터 B-2 스텔스 폭격기의 비행이 정지됐고 20대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면밀히 검사할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미 공군에 의하면 엔진 damp 부분이 잘못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예상 하중보다 높기 때문에 깨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이런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위치 조정 및 엔진 damp를 더 강하게 개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B-2 스텔스 폭격기에는 4개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 엔진 F-118가 탑재되어 있다.

프랑스 MEADS참가포기 대공방위시스템 3국만 참여

당초 미국이 50%, 프랑스, 독일이 각각 20% 그리고 이탈리아가 10%의 자금으로 99년에 시작하여 2005년에 개발이 완료될 계획이었던 미래 대공방위시스템(Medium

Extended Air-Defence System, MEADS)계획에 프랑스가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나머지 3국은 동 계획의 합의서에 서명할 계획이며 MEADS에는 레이손(Raytheon)사 Hawk와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정부는 미래에 대한 방위예산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계획에 참여 못한다고 밝혔으나 아에로스빠시알사와 톰슨(Thomson)-CSF사는 참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참여 업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 국 : Hughes, Raytheon, LockheedMartin
독 일 : Daimler-Benz Aerospace, Siemens
이태리 : Alenia

미, 아파치헬기 판매키로 동남아시아 등지에

미국정부는 말레이시아가 공군에 사용될 공격용헬기를 수출해줄 것으로 요구함에 따라 맥도널더글라스(MD)사의 AH-64D 아파치 헬기를 동남아시아에 판매키로 하였다. 총 판매대수는 97년까지 최소한 12대가 예상된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말레이시아 공군에 동 기종과 경쟁기종인 데넬(Denel Group)사의 CSH-2를 판매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는 AH-64A기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말레이시아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미의회, FA-18슈퍼호넷기 개발취소 건의

미의회는 국방부가 810억 달러를 들여 개발중인 해군 차세대 최신예 전투기인 'FA-18 슈퍼 호넷'기 개발계획의 취소를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고 디펜스 위크지가 보도했다.

디펜스 위크는 최근 입수한 미의회 총예산국의 보고서 초안을 인용, 총예산국이 국방부에 대해 '슈퍼 호넷'기의 개발을 취소하고 최종생산단계에 접어든 신형 '호넷'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면 1백70억 달러가량을 절약할 수 있음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슈퍼 호넷기 개발중 이록한 스텔스 기술향상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해군이 슈퍼호넷기 개발을 정당화하는 가운데 인용한 호넷기의 운용상 결함은 구체화된 것이 아니거나 구조적인 변화없이도 시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 지는 그러나 이 보고서가 의회내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덧붙였는데 슈퍼 호넷기를 제조할 항공기 제작회사가 있는 미주리, 캘리포니아주출신 의원들은 이 최신예전투기의 개발을 크게 지지해왔다.

러 Su-35, 비행시험 추력벡터제어 장착

러시아는 추력벡터방식을 채용한 Su-27M(Su-35)전투기의 비행시험을 지난 4월 5차례에 걸쳐 수행하였다고 밝혔다. 동 기종의 큰 특징은 비대칭형 노즐모양을 들수 있다.

동 기종은 Saturn Lyulka개량형 AL-31엔진을 장착하였으며 동 엔진에 장착되는 노즐은 피치(Pitch)와 요(yw)방향에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추력벡터 장치를 장착하였다. 또, 다기능레이더를 장착하였으며 레이저자이로 관성센서가 부착된 항법시스템을 장착하였다고 한다.

동 기종의 개발비는 설계국에서 담당하였는데 이는 러시아 공군의 자금사정이 매우 않좋기 때문이다. 설계국은 동 기종의 개발을 지난 4월 중국에 판매한 Su-27 11대, 베트남에 6대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Taxing하고 있는 Su-27M